

“단체장에 입보였다고 7년째 한직이라니...”

#1.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의 고위 간부 A씨는 최근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단체장 후보군인 B씨의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B씨와의 자리 주선'을 부탁했다. 이 간부는 현재 '잘 나가는' 부서의 책임자로 현 단체장의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 A씨가 현 단체장의 경쟁자인 B씨와 '선'을 대고 있는 것이다.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다.

#2. 또 다른 자치단체의 고위 간부 C씨는 7년째 '변방'을 돌고 있다. 7년 전인 2002년 지방선거에서 현 단체장의 경쟁 후보와 친했다는 이유로 선거 후 '한직'으로 좌천됐다. 하지만 현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C씨는 7년째 '변방'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선출직 단체장에게 뛰어난 막강한 인사

지방행정研, 공무원 1,583명 대상 인식도 조사

“학연·지연·인맥이 승진·보직인사 절대적 영향”

권의 이면이다. 공무원들의 불만도 여기에 있다. 친소관계나 인맥에 따라 승진과 보직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최근 실시한 공무원 인식도 조사에서 지방공무원 10명 중 5명은 승진과 보직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일선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호남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수석연구원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공무원 1

천5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지방공무원들은 가장 시급한 인사제도 개선 분야로 '승진'(25.2%)과 '탄력적 인사 배치'(21.1%)를 들었다. 탄력적 인사배치는 보직 인사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 '인사평가 제도'(17.9%), '부서 이동·직무 순환'(14.8%), '교육 및 경력 개발'(10.9%), '제안 및 고충처리'(5.8%) 순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도시의 지방공무원들은 '승진제도'(26.7%)에, 농촌 공무원들은 '탄력적 인력 배

치'(23.3%)에 가장 불만이 높았다. 직급별로는 5급에서는 '인사평가 제도'(20.2%), 7급에서는 '승진제도'(28.0%), 8급에서는 '탄력적 인력 배치'(24.0%)와 '부서이동·직무순환'(23.3%), 기능직에서는 '탄력적 인력배치'(31.7%)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 중 66.8%는 '학연·지연·인맥 등이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42.9%는 '기관에 필요한 사람이 승진자 명단에서 누락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 수석연구원은 "인사관리제도의 운영에서 자의적 인사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임두택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계급제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며 "승진 쿼터제를 정원의 10% 정도로 확대하고 직무에 따라 대우와 처우를 달리하는 '직무등급제' 도입을 검토해 승진 문제에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만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현장과 시각

서점에 지역 작가 코너 만들자



김대성

문화부 기자

얼마 전 독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평소 좋아했던 작가가 최근 서점을 냈다고 하는데, 서점 서점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점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니 "책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런바 '대박을 낸 작품'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출판사에서 낸 책은 거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아예 서점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서점의 책 공급 루트가 서울의 출판사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출판사 발행의 책은 접근 자체가 차단돼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민지 못할 일이지만 이것이 지역 문화와 출판계의 현실이다. 지역문화가 어렵고 지역출판계가 힘들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지만 이 정도일줄이야.

그렇다면, '책이 나와도 구해볼 수 없는 현실'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지역대학 교수인 평론가 A씨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말한다. 문화적 근간이 튼튼한 광주·전남의 경우 몇 가지 점만 개선하면 '회생'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문화가 설 수 있는 토대는 작품의 완성도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지역 작가들이 지역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간한다면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출판의 문제다. 작품과 출판은 지역문화의 '인과 박'이다. 많은 출판사가 작품의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비출판거리만 찾고 있는 현실에선 지역문화의 회생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서점에서 소위 '팔리지 않는' 지역작가 대부분이 서울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있는 게 좋은 예다.

출판 실무자들의 의식전환도 시급하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기 혁신과 출판에 모든 것을 걸고 투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작가들도 지역문화와 지역출판에 대한 자기희생을 각오해야 함은 물론이다.

일부 출판업자들은 지역출판 활성화 조례 제정과 같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매년 지역 출판사의 우수 도서를 선정해 공공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는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출판 활성화와 독서 진흥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창작 지원금(문예진흥기금 등) 제도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작품의 질과 무관하게 소액다건으로 지원되는 지금의 창작지원금 제도의 운영을 완전히 거꾸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지역 서점에 지역출신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특별 부스 하나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최근 김경욱, 김경주, 정유정 등 지역 출신 작가들이 국내 유명 문학상을 휩쓸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마냥 기쁘기 보다는 작금의 지역문화의 현실을 돌아보면 마음 한켠이 아리다. "집안이 어려울 때일수록 객지에 나가 '반짝 성공'을 거둔 자식보다는 늘 집안을 지켜주는 자식이 든든한 법"이라는 말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bigkim@kwangju.co.kr



보폭 넓히는 박광태 광주시장

구의회 운영위원장과 오찬·재래시장 방문도

박광태 광주시장이 친서민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 시장은 9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수렴한 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사진)

이는 민생현안 점검차 울 상반기에 양동시장과 남광주시장을 둘러본 데 따른 후속 방문으로,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차원이 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박 시장은 연말께 광산구 소재 재래시장을 방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그는 이날 '밀바다 민심'과 접촉이 잦은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시장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던 모의회 운영위원장은 "구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배려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박 시장은 시장이자 선배정치인으로서 후배정치인들에게 덕담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이런 행보는 일선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반영됨과 동시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스킨십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읽힌다. /윤영기기자 penfoot@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8일(현지시간) 여행객들이 독일 베를린 브란덴 브루크의 옛 베를린 장벽을 따라 세워진 대형 도미노를 구경하고 있다. 도미노는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8일(현지시간) 여행객들이 독일 베를린 브란덴 브루크의 옛 베를린 장벽을 따라 세워진 대형 도미노를 구경하고 있다. 도미노는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연합뉴스

이정현 "MB정부 호남인사 소외 극심"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재임하고 있는 1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3분의 2 이상이 서울 및 영남지역 출신인 반면 호남지역 출신은 10%도 안될 뿐 아니라 호남 출신 퇴임자 자리를 서울 및 영남 출신이 대신 채우는 등 호남 소외 인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임하고 있는 1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총 115명 중 58명(50.4%)이 서울지역 출신이었으며 영남지역 출신이 31명(27.0%)으로 그 다음이었다"며 "두 지역 출신은 89명으로 재임 중인 전체 정무직 공무원의 77.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전남대서 '김대중 사상' 특강



고 김대중 대통령의 '복심'이자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국회의원이 김 대통령의 업적과 사상을 조명하기 위해 강사로 나선다. 박지원(민주당 정책위의장) 의원은 10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용봉홀 대강당에서 열리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사상 대강좌'에서 사회·문화 부문 사상과 업적을 소개했다. 이 강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계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비전한국도포럼(상임대표·유선호 국회의원)과 5·18연구소에서 주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일선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1. 목적

- 일선 공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함
- 일선 공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함

2. 일시

- 11월 10일(화) 오후 2시~4시 (교육원 대강당)
- 11월 11일(수) 오후 2시~4시 (교육원 대강당)
- 11월 12일(목) 오후 2시~4시 (교육원 대강당)
- 11월 13일(금) 오후 2시~4시 (교육원 대강당)
- 11월 14일(토) 오후 2시~4시 (교육원 대강당)

3. 대상

- 1. 인사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 2.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무원
- 3.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무원
- 4.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무원
- 5.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무원
- 6.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무원
- 7.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무원
- 8.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무원
- 9.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무원
- 10.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무원

구분	비고
1. 신청 대상	1. 인사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2.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후 인사과에 제출함
3. 신청 기간	1. 11월 10일(화) 오후 2시~4시
4. 신청 장소	1. 교육원 대강당
5. 신청 비용	1. 무료
6. 신청 문의	1. 인사과 (02-1234-5678)